

디지털 혼돈



김상래

우리의 선조님들은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로 세상의 변화를 얘기했었다. 물론 이 말은 변화의 빠르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십 년 세월의 장구함을 말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10 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이 변화했었던 것 같다.

오늘날은 어떤가? 요즘은 누구 나가 세상의 빠른 변화를 얘기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언론 매체에는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약력 : • 93~95 금융결제원 전산개발부 • 95~97 경영전략팀 • 97 전자금융연구소 시스템개발실 실장 • 97~98 대구지부 지부장 • 현재 전자금융연구소 소장

소개가 등장하고 독자들은 그러한 사실에 신기해하고 감탄한다. 그러나 “이젠 몇 년이면 강산이 변할까?”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현실은 비록 직접 화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몇 년 후에 강산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지 못하면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더욱 전자기기 분야나 정보통신 분야는 그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서 일반인들은 물론 이 분야의 전문가들조차도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한층 더 심각한 것은 전자/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곧바로 사회적 변화를 주도한다는 점이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생활 양식은 물론 사고의 틀까지도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당장 눈앞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기술과 변화를 소화해 나가기도 벅하다.

VCR의 예약 녹화 기능을 활용하기에도 힘겨운 우리 나라의 보통 사람들로서는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닌가? “지금까지 그런 것(새로운 기술 제품) 없이도 다 잘 살아왔는데... 기술 조금 아는 자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게 아니란 걸 알기나 하나?”라고 조금은 완곡하게 말하는 이도 있을 것 같고, “주객이 뒤바뀌어도 유분수지!”라고 통탄하며 기술 신봉자들을 질타하는 적의에 찬 목소리도 들려온다.

나는 어느 쪽인가? 나 자신 정보처리전문가협회 회원' 이니까 당연히 이 분야의 전문가임을 자각하고 “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를 설득해야 할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고 대강의 신념 또한 그러하지만, 가끔은 “과연 이 길이 진실로 가야만 하는 길인가?”라는 의구를 떨쳐버릴 수 없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당장에 냉혹한 경쟁의 세계에서 도태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갈릴레오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도 지구는 디지털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망설임에 대한 대답은 분명해 진다. 내가 ‘정보처리전문가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대답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그러나 참 이상한 일은 내 생각이 이쯤 정리된 다음에는 언제나 어떤 이름 하나를 떠올리게 되고 연이어서 지금까지 정리된 생각들은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스물한 살이나 먹은 ‘아담’이라는 사이버 연예인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은 조금 시들해졌지만 처음 등장할 때는 엄청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심지어는 TV 9시 뉴스에도 등장했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었다. 요즘에도 인터넷에는 무수히 많은 사이트와 개인 홈페이지들이 그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담’을 이어서 ‘류시아’라는 여자 사이버 가수도 등장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브’라는 이름을 갖지 않은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처음 ‘아담’에 관한 기사를 접했을 때의 느낌은 재미있는 발상이라는 생각보다는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도전’과 같은 엉뚱한 것이

였다. 난 기독교를 믿지도 않는데 왜 그런 영똥한(스스로도 너무 심한 비약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연상을 하게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는 것이 병’이란 속담처럼 이 분야의 기술을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얼마든지 정말 사람과 구별하기 힘들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담’의 후손이 등장할 수 있다는 기술적 예측 때문 이리라.

사실은 이 분야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상당 수준의 진전이 있었다. 조금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공룡이나 코끼리 같은 동물들은 물론 최근의 ‘스타워즈’ 같은 영화의 수많은 출연진이 이미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쉽게 미래를 유추할 수 있다. 언젠가는 주연 여배우도 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 질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언제나 TV를 통해서만 만나는 인기 연예인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을 사진으로 찍은 것인지, 이 세상에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아주 정교한 컴퓨터 그래픽의 산물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실제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방송국 앞에서 기다렸다가 악수를 청해 보려는 시도를 해보기 전까지는 둘 사이의 어떤 차이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화 배우나 TV 탤런트만 미래의 사양 직종으로 전락할 것인가? 또 다른 사양 직종은 없을 것인가? 컴퓨터가 창조한 피

조물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분야는 얼마나 될 것인가? 상상이 지나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그 어떤 역할도 인간의 전 유물로서 존재할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SF영화가 그리는 암울한 미래가 결국은 우리의 현실로서 찾아 올 것인가?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나는 어떻게 해야하나? 온 세계가 디지털화 되는 것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은 또 간명해진다. 우리가 야날로그 시대부터 써먹던 도전에 대한 응전 수단인 정면 돌파만이 유일한 길이 아닐까?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우선 컴퓨터 앞으로 한 발 더 다가서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그 길밖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디지털 혼돈은 또 계속 될 것 같고...